일본소설 속의 헤테로화(化)하는 공간, 만주

- 투영(投影), 반전(反轉), 이질성(異質性)의 병치 -

이영희*

〈차 례〉

1. 들어가며
2. 나쓰메 소세키(夏目漱石)의 만주--대상(代償)의 헤테로토피아
3. 아베 코보(安倍公房)의 헤테로화(化)하는 공간, 만주
4. 나오며

【국문초록】

본 논문은 미쉘 푸코의 공간론인 헤테로토피아를 일본의 소설 속 배경으로 등장하는 만주에 적용시켜, 일본문학 작품에서 만주라는 공간이 어떻게 파악되고 있고 어떤 식으로 표상되며 어떤 식으로 형상화되고 있는가를 새롭게 해석해 보고자 했다.

본고에서는 특히 나쓰메 소세키와 아베 코보의 만주관련 작품에 헤테로토피아를 연관시켜 적용해 보았는데, 나쓰메 소세키의 세 편의 소설에서는, 일본에 더 이상 있을 수없는 실패자, 낙오자, 불행한 사람, 의지할 곳 없는 사람들이 만주라는 공간에서는 활기차게 새로운 삶을 개척할 수 있는 희망의 공간, 이상의 실현을 향

* 영남대학교 일어일문학과 강사

한 '대상(代償)의 헤테로토피아'로서 형상화된 것을 알게 되었다. 또한 당시 꿈을 펼칠 수 없었던 일본의 사회구조 비판 및 금권사회 나아가서는 근대문명에 대한 비판까지 함께 고찰해 볼 수 있었다.

이어서 아베 코보의 『변형의 기록』『짐승들은 고향을 향한다』라는 두 작품을 중심으로 만주라는 공간 속에 펼쳐지는 사자(死者)를 비롯한 이타(異他)의 인물들, 또 등장하는 인물들의 심리가 이질적인 형태로 바뀌어 가는 모습 등을 푸코의 헤테로지니어스(異種混淆的) 공간으로 해석하면서, 헤테로토피아의 이질성의 병치원리인, 즉, 헤테로토피아는 '하나의 리얼한 장소에 원래 상호간에 공존 불가능한 다양하고 이질적인 복수의 공간들 혹은 영역들을 반영, 병치시킬 수 있다'는 부분을 적용시켰다.

또 이 작품은 '사자(死者)'의 시선을 통해 전쟁의 현실과 잔혹함을 묘사하는 점에서, 헤테로토피아의 특성인, 거울이 가지는 대칭성과 반전성(反轉性)의 특질 즉, 사회적 현실을 투영하는 거울로서의 공간을 만주로 설정, 작가의 반전(反戰)사상 및 식민지 비판에 관한 인식의 투영이라는 점도 함께 설명했다.

『짐승들은 고향을 향한다』에서는 주인공이 '짐승화(化)'되어 가는 묘사에 대해, 푸코가 대상(위치)의 힘에 의해 주체가 만들어진다고 했듯이, 작품의 주인공은 만주라는 지역성에 의해 변형되어 가는, 즉 '헤테로화(化)'해 가는 주체가 된다고 해석하고 이러한 짐승화를 촉진하는 것은 실로 만주라는 지역성과 패전 후의 시대성이라고 덧붙였다.

결말에서 주인공이 일본에 가지 못하고 선창에 갇힌 것은 지금까지의 모든 행위의 무효가 되는, 또 다시 만주로 돌아가지 않으면 안 되는 반전이라고도 생각할 수 있으며, 푸코가 말한 "그것들이 가리키거나, 투영되거나 반영되어 있는 관계의 전체를 의심하거나, 무효로 하거나, 전도(顚倒)시키는 방법으로 다른 모든 장소

와 관계하고 있는, 기묘한 성질을 갖춘 장(場)"으로서의 공간이라고 해석했다.

주제어: 미셸 푸코, 공간론, 헤테로토피아, 만주, 나쓰메 소세키, 아베 코보, 투영, 반전, 이질성의 병치, 혼효

1. 들어가며

미셸 푸코는 「타자의 공간」에서, 헤테로토피아[1]라고 명명되는 '타자의 공간'을 손에 잡히지 않고 눈에 보이지 않는, 절대적 부재로서의 외부가 아니라, 매우 낯 설고 이질적인 형상을 취하는 실재적 장소로서, 현실에 부재하는 유토피아와는 반대로 실재하는 공간으로서 명시적으로 정의한다. "모든 문화, 모든 문명마다 사회의 제도 자체 안에서 윤곽을 드러내는 장소들이, 현실적 장소, 유

1) 「헤테로토피아」는 도시의 다양한 현상을 역사적으로 고찰한 글이라기보다는 공간 자체에 대한 푸코 자신의 관점을 펼친 이론적 저작이다. 용어 헤테로토피아(l'hétérotopie)는 어원적으로 '이질적 공간'으로 번역가능하며, 이는 이 용어가 무엇보다도 '동질적 공간'을 의미하는 호모토피아(l'homotopie)의 상대어임을 추정할 수 있게 해준다. 푸코가 헤테로토피아를 '우리가 몇몇 사회적 공간들 안에서 발견하는 특이한 공간들'로 규정하면서, '그 기능은 여타 공간들의 기능과는 다른 것, 즉 전혀 반대되는 것'이라고 말할 때, 우리는 위 문장에 등장하는 '여타의 공간'이 '특이한 공간이 아닌 공간' 곧 동질적 공간임을 알 수 있다. 한 마디로, 헤테로토피아는 '특이성(singularité)을 자신의 특성으로 갖는 공간', 한 사회 내의 여타 공간들과는 어떤 방식으로든 구분되는 '절대적으로 다른'(absolument autre) 공간이다. 헤테로토피아는 복수적·다수적·분산적 공간, 이질적 공간이다. 이때의 이질성이란 헤테로토피아가 - 그것의 실내용이 무엇이든, 혹은 어떤 기준에 의해 구분되든 - 결국 '한 사회가 일상적인 것 혹은 정상적인 것으로 규정한 한계의 바깥에 위치하는 무엇인가'에 관련되는 공간임을 함축한다. 허경, 「미셸푸코의 '헤테로토피아' - 초기공간개념에 대한 비판적 검토」, 『현대사상과 도시』, 라움, 2012, p. 202.

효한 장소들이 있다. 이는 일종의 대항-배치이고, 사람들이 문화의 내부에서 발견하는 다른 모든 현실적 배치들이 그 안에서 표상되는 동시에 반박되거나 역전되는 모든 실제로 현실화된 일종의 유토피아이고, 모든 장소들 바깥에 있는 일종의 장소이면서도 실제로 국지화될 수 있는 그런 장소다. 흔히 반성되고 언급되는 모든 배치와 절대적으로 다르다는 점에서 나는 이러한 장소를 유토피아와 반대되는 의미에서 헤테로토피아라고 부를 것이다"[2]라고 말하며 어느 사회나 문화에서도 이런 헤테로토피아는 있었다는 것, 어쩌면 양립할 수 없을 것처럼 보이는 이 이질적적인 공간들이 어디서나 복수로 공존했다는 것, 그리고 한 사회는 이 헤테로토피아를 역사적으로 다른 방식으로 규정하고 다른 방식으로 작동하게 했다는 것 등을 원리라는 이름으로 명시하고 있다.

유토피아가 현실에는 없는 몽상의 세계라면 헤테로토피아는 현실적으로 존재하는 사회다. 그렇지만 자기가 일상적으로 살아가는 세계와는 다른 이질적인 세계를 말한다. 거기에 감으로써 완전히 다른 체험, 완전히 다른 의식을 가지게 되는 공간을 헤테로토피아라고 하는데, 만주가 그러한 공간으로 똑같은 공간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고 그 속에서도 다른 도시공간이 존재한다. 그런 시점에서 만주를 볼 때, 또 다른 만주가 보인다. 만주는 아시아 속에 유럽이 있고 게다가 오리엔탈리즘과 옥시덴탈리즘이 혼재되어있는 공간으로서 균질적인 근대적 공간개념이 아닌 헤테로토피아이다.

그 예로 야마무로 신이치는『키메라-만주국의 초상(キメラ 滿州國の肖像)』에서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모스크바가 아시아로 옮겨 온 공간인 하얼빈은 동양의 파리이며 영락한 러시아 귀족들이 있는 도시이다. 다롄과 하얼빈은 가장 가까운 유럽으로, 파리에

2) M.Foucault, "Des esoaces autres", Dits et écrits IV, Gallimard, 1994, pp. 755-756. 이진경,『외부, 사유의 정치학』, 그린비출판사, 2009, p. 104에서 재인용.

가지 않아도 모스크바에 가지 않아도 모스크바나 파리를 체험할 수 있는 공간이다. 아시아이기 때문에 똑같은 공간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고 그 속에서도 다른 도시공간이 존재한다"[3]라고 서술했다. 이런 시점에서 만주를 볼 때, 그런 시점에서 아시아를 볼 때 다른 만주, 다른 아시아가 보인다. 범주체계로서는 받아들일 수 없는 규칙체계가 존재하는 공간이며 여기서 이질적인 삶의 현장을 볼 수 있는 곳이다. 근대적 공간개념에서 보면 공간이라는 것은 균질적인 것으로, 중앙을 보면 전체를 볼 수 있고 지방이란 축소된 중앙이라는 균질적인 공간이 바로 근대의 공간이다. 만주는 이러한 근대적 공간개념이 아닌 헤테로토피아이다.

문학에서도 공간이 어떻게 파악되고 있고 어떤 식으로 표상되며 어떤 식으로 형상화되고 있는가를 물을 때 만주가 역시 달라 보일 것이다. 푸코의 헤테로토피아론은 건축과 미술, 사진, 무용 등에서 제각기 해석되어 창작에 있어서 새로운 전개를 촉구하는 가능성을 열고 있는데, 만주를 배경으로 한 일본문학 작품에서도 헤테로토피아론을 적용하여 포착해서 본다면 만주에 관한 연구영역은 확대될 것이고 유의미한 연구로 될 것이다.

본고에서는 나쓰메 소세키와 아베 코보의 작품배경이 되는 만주공간에 헤테로토피아[4]를 연관시켜, 사회적 현실을 투영하거나 혹

---

3) 야마무로신이치 저/윤대석 역, 『키메라 - 만주국의 초상(キメラ 滿州國の肖像)』, 소명출판, 2009, p. 17.

4) 헤테로토피아의 원리는 다음과 같다.
1. 보편성원리: 그 내부에 헤테로토피아를 갖지 않는 사회는 존재하지 않는다.
2. 고유기능원리: 하나의 사회 문화 내에서 중복되지 않는 고유기능을 담당하는 다양한 헤테로토피아가 존재한다. 때로 이 기능을 변형시키거나 혹은 때로는 일정한 수의 헤테로토피아들을 폐기시키기도 한다.
3. 이질성의 병치원리: 헤테로토피아는 하나의 리얼한 장소에 원래 상호간에 공존 불가능한 다양하고 이질적인 복수의 공간들 혹은 영역들을 반영, 병치시킬 수 있다.

은 반전(反轉)되기도 하는-거울이 가지는 대칭성과 반전성-현실 속에 존재하는 리얼한 공간으로서 파악해 보고자 한다. 만주를 배경으로 한 일본 문학작품을 헤테로토피아론과의 관련성에 대해 논하는 것은 첫 시도이므로, 앞으로 문학이론에 있어서 연구영역의 확대와 새로운 각도의 문학창작의 활성화를 위해 연구의 필요성이 요구되는 바이다.

2. 나쓰메 소세키의 만주--대상(代償)의 헤테로토피아

근대기 중국의 엘도라도라고도 불리었던 만주에 대해, 일본 근대문학의 최고봉이라 불리는 나쓰메 소세키 또한 그의 여러 장편

---

4. 헤테로크로니와의 링크원리 : 헤테로토피아는 대부분의 경우 시간의 제단편(諸斷片)과 연결되어 있다. 이러한 시간은 헤테로토피아와는 대칭적인 헤테로크로니(Heterochronies)라 불린다.
   ①시간의 무한축적을 동반하는 타입
   ②시간의 일시적 경과를 동반하는 타입
5. 개폐성원리 :헤테로토피아는 항상 자신을 격리하고, 또는 침입가능하게 하는 장치를 전제로 하고 있다.(항상 구성원들을 격리하고 받아들이는 자신만의 개폐체계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가정된다)
6. 전(全)영역의 기능원리 : 헤테로토피아는 남아있는 모든 공간과의 관계에 있어서 하나의 기능을 다한다. 헤테로토피아가 자신이외의 남아있는 모든 타공간과의 관계에 있어서 완수하는 기능에는 ①환영(幻影)기능(illusion-환상과 상상의 방식)과 ②대상(代償)기능(compensation-보상에 입각한 창조방식)두 타입이 있다. ①은 인간생활이 제각기 경계되어 있는 다른 모든 리얼한 영역을 환영으로서 드러나 보이게 하는 공간을 창조하는 타입, 예로 집창촌이 있으며, ②는 난잡하고 불충분하게 구성되어 다루기 어려운 다른 장소를 세부에 걸쳐 완벽하게 정비된 대상(代償)적인 공간으로서 창조하는 기능이며 그 전형은 식민지와 남미의 예수회 콜로니 등, 이와 같은 헤테로토피아의 사회문화에 있어서의 의의에 관한 제6원리는 일상적인 일반적인 제 영역과의 관계에 있어서 그 현실의 어느 측면을 유의미하게 반영하는 거울과도 닮은 독특의 기능에 관한 것이다.

소설 속에서 지극히 일부분이지만 만주를 묘사하고 있다. 그의 작품 속에서는 만주와 관련되는 인물들이 큰 비중을 차지하지 않아 그다지 주목을 받지 못하고 있다고 할 수 있으나 작품 속에 등장하는 인물들을 통해 나타나는 소세키의 만주의 형상에 대해 먼저 고찰 해보고자 한다. 실제로 소세키는 한국과 만주를 1909년 46일간 여행[5]하고 집필한 기행문「만주와 한국 여기저기(滿韓ところどころ)」에는 근대화의 소용돌이 속에서 살아가는 인간의 내면세계에 늘 집중하던 소세키의 시선이 만주에서는 보이지 않고 일차적으로 눈에 보이는 외적인 면만을 나열하는 데에 그치고 있다. 이러한 소세키의 만주에서 보여줬던 상반된 자세가 작품 속에 어떻게 드러나 있는지 먼저 살펴보도록 한다. 소세키 작품 속에서 만주로 가는 인물은『풀베개(草枕)』(『신소설(新小說)』(1906))의 나미(奈美)의 전 남편과『문(門)』(『아사히신문』1910.3.1.~6.12)의 야스이(安井),『피안 지나기까지(彼岸過迄)』(『아사히신문』1912.1.1~4.29)의 모리모토(森本)를 들 수 있다.

먼저『풀베개』에서는 주인공 나미의 남편이 전쟁으로 인해 모든

---

5) 만주행을 권유한 남만주철도회사의 총재였던 나카무라제코(中村是公)의 초청에 의한 것이었는데 소세키는 만주의 대련(大連), 여순(旅順), 봉천(奉天), 하얼빈, 장춘(長春)을 거쳐 조선의 평양, 경성, 인천, 부산 등 당시 만주와 한국의 큰 도시를 여행하였다. 그리고 귀국 후 바로 기행문의 성격을 띤「만주와 한국 여기저기(滿韓ところどころ)」를 아사히신문에 연재한다. 소세키는 이 기행문에서 주로 만주에서 성공한 옛 친구들과의 재회 및 그들과의 추억 그리고 그가 견학한 곳을 순서대로 소개했다. 당시 일본국민의 조선 만주에 대한 관심은 이상하게 강해지고 있었다. 당시의 신문은 연일 큰 스페이스를 조선 만주에 대한 기사에 할당하고 있었다. 소세키는 만철총재에 취임 한학생시절의 친구인 나카무라 제코의 권유로 이 여행을 하게 된 것인데 나카무라는 새롭게 발족한 만철의 사업을 소세키가 널리 알려 주기를 원하는 생각이 있었을 것이고 아사이신문도 소세키의 만한여행기는 큰 평판을 불러일으킬 것이라고 기대하여 그 연재를 서둘렀다고 한다. 伊豆利彦、「漱石とアジアー滿韓ところどころその他」、『漱石と天皇制』、有精堂、1989、p. 65.

것을 잃고 돈을 벌기 위해 만주행을 떠나는 설정으로 되어 있다. 일본에서 있을 수 없는 상황에 처한 사람들이 새로운 삶을 찾기 위해 떠나는 곳으로 형상화되어 있고, 『문』에서는,

① 친구와 부인에게 배신을 당한 야스이(安井)는 결국 학교를 그만두고 고향으로 돌아가 병을 앓다가 만주 봉천(奉天)으로 가서 건강하고 활발하게 또 바쁘게 지내고 있다는 묘사.

② 주인공 소스케의 남동생인 고로쿠가 학비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학교를 그만두고 만주에 가려는 꿈을 갖고 있으며,

③ 집주인의 남동생이 모험심이 왕성하여 만주와 몽고에 가서 활기차게 사업을 하고 있는 묘사 등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하고 개척할 수 있는 가능성을 부여해 주는 장소로 표현하고 있다.

『피안 지나기까지』라는 작품에서는, 주인공 모리모토(森本)는 부랑자와 마찬가지로, 가난하고 학식도 없어 사회적으로 인정받지 못하는 차별적인 시선으로 보여지고 있으나, 모리모토가 대련에 가서는 상당히 성공하여 지인들에게까지 편지를 보내어 취직시켜 주겠다며 만주에 오도록 적극적으로 권유하고 있는 장면에서 신분상승과 함께 만주드림(Dream)을 표상한다.

이상 소세키의 세 편의 소설에서는, 일본에 더 이상 있을 수 없는 실패자, 낙오자, 불행한 사람, 의지할 곳 없는 사람들이 만주라는 공간에서는 활기차게 새로운 삶을 개척할 수 있는 희망의 공간, 이상의 실현을 향한 '대상(代償)의 헤테로토피아'[6]로서 형상화

---

6) 미셸 푸코가 말한 헤테로토피아의 원리 중 전(全)영역의 기능원리를 말하며, 즉, 헤테로토피아는 남아있는 모든 공간과의 관계에 있어서 하나의 기능을 다한다. 헤테로토피아가 자신이외의 남아있는 모든 타공간과의 관계에 있어서 완수하는 기능에는 ①환영(幻影)기능(illusion-환상과 상상의 방식)과 ②대상(代償)기능(compensation-보상에 입각한 창조방식)두 타입이 있다.①은 인간생활이 제각기 경계되어 있는 다른 모든 리얼한 영역을 환영으로서 드러나 보이게 하는 공간을 창조하는 타입, 예로 집창촌이 있으며, ②는 난잡하고 불충분하게 구성되어 다루기 어려운 다른 장소를 세부에 걸쳐 완벽하게 정비된 대상(代償)적인 공간으로서 창조하는 기능이며 그

시키면서, 그것과 대조적으로 당시 꿈을 펼칠 수 없었던 일본의 사회구조의 비판 및 금권사회 나아가서는 근대문명에 대한 비판까지 함께 고찰해 볼 수 있다. 헤테로토피아는 내부의 공간이 아닌 "외부의 공간"[7]이고 동일성이 아닌 이질성, 즉 "차이의 공간"[8]이다. 그것은 "환원 불가능한 관계들의 총체"[9]이며 따라서 "관계들의 조합을 통한 배치"[10]의 형태로 제시되는 공간으로, 이상적인 유토피아의 실현을 위해 계획된 사회제도 등을 포함하는 실제적 공간이다. 그 속에서는 모든 문화적인 관계들의 배치가 연결되고 결합되지만, 동시에 그러한 배치관계는 표상되고 경쟁되고 "전복"[11] 된다. "성스럽거나 금지된 공간"인 "위기의 공간"[12], 그리고 "일탈의 공간"[13]이 여기에 포함된다. 헤테로토피아는 "실제적 공간을 비난하는 환상의 공간"혹은 반대로 "실제적 공간을 재현하는 보상적 공간"을 "창조하는 역할"[14]이 부여된 곳이다. 따라서 실제적인 사물의 질서에 대항하는, 인간과 자연의 삶에 대한 환상적 해석을 제시한다는 점[15]에서 나쓰메 소세키가 그린 만주공간이 바

전형은 식민지와 남미의 예수회 콜로니 등, 이와 같은 헤테로토피아의 사회문화에 있어서의 의의에 관한 제6원리는 일상적인 일반적인 제 영역과의 관계에 있어서 그 현실의 어느 측면을 유의미하게 반영하는 거울과도 닮은 독특의 기능에 관한 것이다.

7) Foucault. M., "different Spaces", *In J.Faubion(ed), Essential Works of Foucault 1954-1984: Aesthetic, Method, Epistemology,* New York: The New Press, 1998/ 1967, p. 177.

8) 상게서, p. 178.

9) 상게서, p. 178.

10) 상게서, p. 178.

11) 상게서, p. 178.

12) 상게서, p. 179.

13) 상게서, p. 180.

14) 상게서, p. 184.

15) 본고에서는 푸코의 헤테로토피아에 관한 해석을 만주공간에 적용시켜 논했으나, 미술관에 관한 푸코의 이론이라고 해석한 선행논문이 있으므로

로 그러한 곳이라고 할 수 있겠다.

기존의 연구가 소세키의 표면적인 '만주형상', 일반적인 '만주인식'에 머물렀던 연구에서 새로운 재해석이 가능하다.

'대상의 헤테로토피아'로서의 만주는 일본인에게만 가능했던 것이 아니라 당시의 조선인들에게 있어서도 적용가능하다. 만주는 역사적으로도 조선인들이 고대부터 살았던 공간이기 때문에 몇 년 동안 살면 그곳이 자기 고향이 되는 혹은 일종의 친근감을 품게 되는 공간으로 존재했다. 일본이 한반도를 지배했기 때문에 그것을 피해 도망 온 사람도 있었다. 그렇지만 만주가 원래부터 연결된 공간이라고 생각하는 경우에는 결코 이미 존재하는 만주로 도망한다기보다 자신들의 고향이 넓어졌다고 생각하기도 했다.

당시에는 일본이 지배하는 한반도에서는 불가능했던 일들이 만주라는 공간에서는 가능하여, 한 예로 농민출신의 사회학자가 존재하기도 했었다. 만주국에서는 조선인이 2등 국민, 대만인은 1등 국민으로 대우받는 이렇게 공간의 질이 다른 식민지가 만주로, 때로는 타인을 짓밟으며 그 가능성을 만들어갔다. 일본인과 조선인의 대립, 그 연관 가운데 생겨나는 다른 민족과의 관계에서 차별이 생기거나 혹은 다른 가능성이 생기거나 하는 것이 만주공간이었다.

또 일제강점기의 만주는 한반도에서는 불가능했던 일들이 만주라는 공간에서는 가능했다. 실제적 공간을 비난하고 조롱하는 환상의 공간을 창조하는 기능을 수행하고, 잘 배열된 실제적 공간을 완벽하게 재현하여 그 환상을 보상하는 기능을 수행하는 "환상의 헤테로토피아"와 "보상의 헤테로토피아"[16]로서, 이렇게 공간의 질이 다른 식민지가 만주이며, 일본인과 조선인의 대립, 그 연관 가

참고했다. 강정민・김동일, 「미셸 푸코와 미술관에 대한 테제들」, 『인문연구』 제66집, 영남대학교 인문과학연구소, 2012, pp. 137-141.

16) Foucault. M.,전게서, p. 184.

운데 생겨나는 다른 민족과의 관계에서 차별이 생기거나 혹은 다른 가능성이 생기거나 하는 헤테로화하는 공간이 만주였다.

3. 아베 코보의 헤테로화(化)하는 공간, 만주

아베 코보는 태어나서 바로 아버지에 의해 만주에서 자라 1947년에 일본으로 귀환했다. 아베 코보는 만주를 배경으로 하는 수편의 작품을 남겼는데, 그의 만주체험과 관련된

①『끝난 길의 이정표(終りし道の標べに)』(1948)는, 작가의 식민지체험, 패전체험이 소설 속에 형상화. 한때 그의 고향이었던 만주를 '모래, 건조한 바람, 황야'와 같은 살풍경한 이미지로 표상하였으며,

②『굶주린 피부(餓えた皮膚)』(1951)에서는, 일본 지배하의 만주의 어느 마을을 배경으로 일본인여성에 대한 주인공의 복수를 소재로 하고 있다. 주인공 '나' 역시 일본인이며 자산가의 부인이라는 이유로 복수를 계획하고『굶주린 피부』에서 전개되는 폭력은 침략자이자 식민자였던 일본을 향한 복수이기도 하다.

③『변형의 기록(変形の記錄)』(1954)은, 만주에서 일본 군인들의 귀환을 다룬 소설로, 콜레라에 걸려 부대로부터 버림받은 주인공은 패주해 오는 일본인병사들에게 도움을 요청하지만 도와주기는 커녕 전염되는 것이 무서워 장교들은 그를 총살해 버린다. 그 뒤로 육체를 이탈한 주인공 '나'는 죽은 육체에서 이탈된 영혼이 되어 일본인장교들이 탄 트럭에 함께 타고 그들이 저지르는 악행을 목격한다.

④『짐승들은 고향을 향한다(けものたちは故郷をめざす)』(1957)는, 전후 만주국의 해체, 소련침공, 국공내전이라는 혼란속의 만주에서, 나라를 잃고 어머니를 잃고 지인을 잃은 일본인 고아 구키

쿠조(久木久三)가 혼자서 만몽들판에서 탈출을 시도해 일본을 향한다는 이야기로 도주 속에 펼쳐지는 고난의 경험들이 전개된다.

위 작품들에서 그가 표현하는 만주의 원풍경은 언제나 '모래, 건조한 바람, 황야, 처참하고 격렬한 폭풍'으로 묘사했으며, 소설작품들을 표면적이고 피상적으로만 읽으면 만주라는 공간 안에 펼쳐지는 온갖 악행과 그것을 당하는 중국인, 일본인, 조선인 등 인종을 막론한 그들의 처참한 모습과 불행을 다루어, 소세키가 묘사한 이상실현의 장(場)으로서의 '대상의 헤테로토피아'와는 완전히 대조적인 암흑의 디스토피아로 해석되기도 한다.

본고에서는 특히,『변형의 기록』『짐승들은 고향을 향한다』두 작품을 중심으로 만주라는 공간 속에 펼쳐지는 사자(死者)를 비롯한 이타(異他)의 인물들, 또 등장하는 인물들의 심리가 이질적인 형태로 바뀌어 가는 모습 등을 푸코의 헤테로지니어스(異種混淆的) 공간으로 해석하면서, 거울이 가지는 대칭성과 반전성의 특질 즉, 사회적 현실을 투영하는 거울로서의 공간을 만주로 설정했다고 해석해 보고자 한다.

1) 이질성(異質性)의 병치(倂置)--이성(理性)의 외부에서의 투영(投影)

푸코의 헤테로토피아는 '특이성(singularité)을 자신의 특성으로 갖는 공간들'이다. 달리 말해 헤테로토피아는 "한 사회 내의 여타 공간들과는 어떤 방식으로든 구분되는 절대적으로 다른(absolument autre) 공간"[17]이며, 이 공간은 복수적・다수적・분산적 곧 이질적 공간이다. 이때의 이질성이란 헤테로토피아가 - 그것의 실내용이

17) M.Foucault, "Les hétérotopies, in Le corps utopique suivie de Les hétérotopies", Nouvells Editions Lignes, 2009, p. 25.

무엇이든, 혹은 어떤 기준에 의해 구분되든 - 결국 한 사회가 '일상적인 것' 혹은 때로는 '정상적인 것'으로 규정한 한계의 바깥에 위치하는 무엇인가에 관련되는 공간임을 의미한다.

헤테로토피아의 이질성의 병치원리로서 헤테로토피아는 하나의 리얼한 장소에 원래 상호간에 공존 불가능한 다양하고 이질적인 복수의 공간들 혹은 영역들을 반영, 병치시킬 수 있으므로, 이 원리를『변형의 기록』에서 찾아볼 수 있다.

이 작품에서는 만주라는 곳이, 살아있는 자와 죽어서 육체 이탈한 영혼, 또 사자(死者)들만이 있는 마을, 천황사진을 안고 정신이상이 되어서 죽은 각하의 영혼은 살아있는 일본인개척단 소년의 육체로 들어가 삶을 지속하기도 하는 이질적이고 복수적인 혼효의 공간으로 묘사한다.

이 작품은 병사였던 '내'가 전장에서 전염병에 걸려 상관으로부터 무자비하게 살해당한 후, '사자'의 <혼>이 되어 그 시선을 통해 <주변>에서 전쟁을 응시하고 있다는 플롯구성이다. 그것은 '이성의 외부'[18]에서 전시하의 작가의 주변적 위치를 조응한다고도 볼 수 있을 것이다. 그는 '사자'의 시선을 통해 전쟁의 현실과 잔혹함을 묘사하고, 스토리에 있어서는 '사자'의 존재를 중심에 설정하고 있다. 그것을 환언하면 전시기의 고통을 경험한 코보는 그 전쟁체험이라는 필터를 통해 사물과 현상을 포착하는 방법으로 이 작품의 스토리와 묘사대상을 설정하고자 했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점에서는 헤테로토피아의 특성 중, 거울이 가지는 대칭성과 반전성의 특질 즉, 사회적 현실을 투영하는 거울로서의 공간

---

18) 푸코는 블랑쇼의 사상을 '외부의 사유'라고 요약하면서 이렇게 쓴 적이 있다. "주체성의 한계를 드러내기 위해, 그것의 종말을 표시하기 위해, 그 분산을 빛나게 하기 위해, 그리고 오로지 그 주체성의 난공불락의 부재만을 받아들이기 위해 일체의 주체성 외부에 자리 잡는 이 사유"를 '외부의 사유'라고 부를 수 있다." 푸코,「바깥의 사유」, 김현 편,『미셸 푸코의 문학비평』, 문학과 지성사, 1989, p. 190.

을 만주로 설정했다고도 보여진다.

작가의 식민지 체험을 통해 작품 속에 전개되는 폭력은 침략자이자 식민자였던 일본에 대한 비난, 고발로서 투영되고 있다. 아베 코보는 만주라는 특수하고 이질적인 공간을 배경으로 '사자의 이야기'라는 전략을 써서 일본이 일으킨 전쟁을 강하게 비판하려고 했다는 것을 시사한다. 헤테로토피아의 특성과 함께 작가의 반전(反戰)사상 및 식민지 비판에 관한 인식의 투영이라는 점도 함께 설명할 수 있을 것이다.

영혼은 여기서 푸코의 이질성의 병치원리와의 유사성을 지적할 수 있다. 헤테로토피아는 하나의 리얼한 장소에 원래 상호간에 공존 불가능한 다양하고 이질적인 제(諸)영역을 투영, 병치시킬 수 있으므로 이 공간은 서로 공립(共立)불가능한 몇 개의 헤테로한 영역의 사물을 하나의 리얼한 장소에 하이브리드적으로 투영, 병치, 전시시키는 것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푸코는 "그것들이 우연히 가리키거나 투영되거나, 반영되어 있는 관계의 전체를 의심하거나, 무효로 하거나, 전도시키거나 하는 방법으로 다른 온갖 장(場)과 관계하고 있는, 기묘한 성질을 갖춘 장(場)"[19]에 대해 논하고 있다. 그리고 그와 같은 "다른 온갖 장(場)과 관계하면서 그것들과는 모순되는 듯한 공간"[20]으로서 유토피아와 헤테로토피아를 들고 있는데, 『변형의 기록』에서, 영혼은 '대항(對抗)-장(場)' 즉 저항의 공간을 만들어 생자(生者)의 공간에서 일어나는 사건들 즉 일본 군인들의 살육을 목격하고 응시하며 전쟁의 비참함을 영혼의 시선으로 고발하고 있다. 영혼을 본래의 장소와는 이질적인 장소 즉 생자의 장소에 존재하게 함으로써 사회현실을 투영시키게 한다.

---

19) Foucault.M., "Of other space", Diacritis, 1986, p. 24.
20) 상게서, p. 24.

2) 반전(反轉)과 무효(無效)

『짐승들은 고향을 향한다』에서는 일본인의 대대적인 귀환(642만 명)과 함께 만주에는 또 다른 새로운 무리들(국민당, 팔로군, 소비에트 등)이 대거 들어오기 시작하면서 지금까지와는 다른 모습으로 헤테로화하기 시작하는 공간이 된다. 주인공 쿠조는 지금까지는 일본이라는 고향을 향해 끊임없이 도주를 계속하지만 결국은 눈앞에 고향을 두고 돌아가지 못하고 선창에 갇혀 짐승처럼 울부짖는 것으로 끝난다. 쿠조가 바하린(巴哈林)에서부터 황야를 거치면서 일본을 향해 도주해 오는 동안 그의 행동, 사고, 감정의 변화가 두드러진다. 즉 짐승화 되어 가는 면모가 나타나는데 그것이 구체적으로는 물건에 대한 집착, 타자를 구하는 강인한 의지(서로 돕기 위한 반려자가 아니라 자신이 살아남기 위해 필요한 타자), 일본을 향해 끊임없이 걸어가는 이유에 대해 구체적인 동기가 있어서가 아니라 발이 마음대로 선수를 치고 나아가는 것이다. 이상을 생각해 보면 왜 '고향을 향하는가'를 생각하는 것, 즉 고향에 자신의 아이덴티티의 근원을 두는 등의 관념적 사고를 무력화하고, 오히려 구체물에 철저히 집착하여 끊임없이 즉물성에 뿌리내린 사고를 해 가고 있다. 푸코가 대상(위치)의 힘에 의해 주체가 만들어진다고 했듯이, 『짐승들은 고향을 향한다』의 주인공은 만주라는 지역성에 의해 변형되어 가는, 즉 헤테로화해 가는 주체가 된다.

이러한 짐승화를 촉진하는 것은 실로 만주라는 지역성과 패전 후의 시대성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만주황야를 헤쳐 가는 쿠조와 고(高)는 굶주림과 피로, 추위 속에서 드디어 의지를 초월한 것의 힘에 지탱 받으며 여행을 계속하는 것으로도 된다.

"그리고 나서 두 사람을 지탱하고 있는 이미 이성적인 의지가

아니라 공포와 환상과 짐승 같은 내장의 충동뿐이었다. 그 충동에 의해 상대가 지탱되고 있으며 의연하면서도 굴하지 않는 노력을 계속하고 있다는 사실의 자극만이 아직도 사라지려고 하는 생에 대한 집착을, 다시 채찍질하는 마지막 힘이었던 것이다(16)"[21]

여기에서 두 사람은 "짐승 같은 내장의 충동"에 지탱되어 나아간다. 이것을 본능적 행동이라고 부를 수 있을 것이다. 실제로 작중에는 '본능'이라는 말이 산재하고 있으며 이 말이 '짐승(けもの、けだもの)'이라는 말과 결부된다. 두 사람의 본능적이라고도 말할 수 있는 행동은 인간과 개가 대등하게 "세 마리의 아귀(餓鬼)" "세 마리의 인형들"이라고도 표현되는 쿠조와 고(高)와 개가 서로를 식료로 하고자 술수를 쓰는 장면(19)에 있어서 가장 집약적으로 묘사되어 있는데, 이와 같은 행동은 즉, 신체감각과 직접 결부된 행동임에 틀림없다.

이 작품에서 빈출하는 동물적 신체감각이 이 소설의 리얼리티를 표현하는 커다란 원천의 하나라고 할 수 있는데, 계속해서 반응하는 쿠조의 신체감각이 만주황야의 광대한 공간이 얼마나 가혹한지를 독자에게 전한다. 작품모두에 탈출계획을 품은 알렉산드로프와 쿠마중위의 대화에 귀를 기울이는 쿠조의 청각을 시작으로 이후 계속되는 쿠조의 신체감각을 거쳐 마지막 장면에서는 "자주색 철판 표면"을 "손의 껍질이 벗겨져 피가 스며 나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온갖 힘을 다해 두드리"는 쿠조의 손의 통증에 대해, 오에 겐자부가 말했듯이 "정말로 리얼리티를 전해주고 있다"[22]고 느끼

---

21) 安部公房、『けものたちは故郷をめざす』、新潮社、1971、p. 120.

22) 大江健三郎・辻井喬、「眞暗な宇宙を飛ぶ一冊の書物」、『新潮』4、新潮社、1993、p. 11. 여기서 오에겐자부는 "마지막에 소년이 배의 철벽을 계속 두드리는 장면이 있습니다. 거기서부터는 철판을 계속 두드리는 소년의 주먹의 아픔이 정말로 리얼리티를 갖고 전해져 온다고 나는 서평을 썼습니다. 일본의 현상, 혹은 세계의 현상을 계속 두드리는 아픔은 죽을 때까지 이어진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라고 언급했다.

게 한다. 이렇듯 감정을 신체감각에 의해 표현하는 곳이 두드러지며, 행동묘사와 심리묘사에 덧붙여서 신체감각의 묘사를 세심하게 얽히게 한 표현방법을 썼다. 이러한 신체감각의 중시는 작품의 타이틀이 되어 있는 쿠조의, 그리고 고(高)의 짐승 같은 모습을 묘사하는데 있어서 필요불가결한 요소라고 생각된다.

"탄창을 열어 탄알을 뺀다, 무슨 식인지 모르지만 7연발의 자동권총으로 3발을 꺼내니 두발 남는다. 그 세발을 순서대로 얼어붙은 손가락으로 약협을 집어, 탄두를 이빨로 물어 떼어냈다. 피가 스며 나오고 이빨 하나가 흔들 흔들거렸다. 화약을 구멍에 채운다. 되돌아가서 가느다란 가지와 마른 풀을 한 아름 안고 왔다. 거의 아무것도 생각하지 않고 다음의 행동을 결정해 간다는 것은 정말로 불가사의할 정도였다.(15)"[23]

"물을 마시고 싶다. 물만 있으면 20일간은 살 수 있을 것이다. 아무리 봄 냄새가 난다고 해도 이 온도에서는 아직 눈덩이 채 씹어야 한다. 화가 난 나머지 몸이 떨리기 시작했다. 아직도 숨이 막힐 것 같다.(중략) (뭔가 좋은 방법이 없을까) 그러자 갑자기 멋진 생각이 떠올랐다. 깃발을 만든 저 보자기 반쪽을 사용하면 된다. 둘로 접어 눈을 부수어 속에 넣고 네 귀퉁이를 싸매고 막대기를 쑤셔 넣어, 그것을 불 속에 쬐어 보았다. 눈이 녹아 보자기 속을 적신다. 그것을 짜서 아래쪽부터 빨아 마셨다. 맛은 나쁘지만 꽤 많은 양을 마실 수 있었다. 정말 훌륭한 일을 생각해 냈던 것이다. (역시 어떻게든 되는 법이구나...)(17)"[24]

여기서 보여 지는 지혜와 행동은 활동하는 신체로부터 즉각 생겨난 것이라고 말해도 좋을 것이다. 『로빈슨 크루소』에서 보여 지듯 합리적인 지성에 입각해 차례로 자연을 정복해 가는 지혜와 행

23) 安部公房, 전게서, pp. 109-110.
24) 상게서, pp. 135-136.

동이 아니라, 기아를 비롯한 수난 속에서부터 직접 생겨나는 것이며, 그것은 즉 신체감각에 뿌리내린 지혜이며 행동이다. 물론 그러한 것들이 단순히, “내심의 동요와는 관계없이 해야 할 일을 계속한다”라든가, “거의 아무것도 생각하지 않고 다음의 행동을 결정해 간다는 것은 정말로 불가사의할 정도였다”라는 표현이 뒷장으로 갈수록 빈출한다. 이러한 행동들은 언제나 쿠조에게 좋은 결과를 가져 온 것은 아니다. 작품의 마지막 절, 쿠조는 일본을 눈앞에 두고 감금된 일본 배에서 나올 수 없다. 그는 어머니와 함께 높은 담 안에 있는 어린 시절의 자기 자신을, 높은 담 밖에서 바라보고 있는 꿈을 꾸다가, “혹시 일본 따위 어디에도 없을지도 몰라. 내가 걸으면 황야도 함께 걷기 시작한다. 일본은 점점 도망가고 마는 것이다...” “나는 출발할 때부터 반대쪽을 향해 걷기 시작했을 것이다... 아마 그 탓으로 아직 이렇게 황야 속을 계속 헤매고 있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다”라고 생각하기도 한다. 이것을 패전에 의한 고향상실체험이 아베에게 가져 온 감성 또는 인식의 원형이 형상화되어 있다고 하는 평[25]도 있는 부분이기도 하지만, 작품은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는 갑자기 주먹을 휘두르며 자주색 철판 표면을 치기 시작한다. 짐승이 되어 울부짖으면서 손의 껍질이 벗겨져 피가 스며 나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온갖 힘을 다해 두드린다”에서처럼, 작품은 어디까지나 쿠조의 <짐승>으로서의 격렬한 행위를 묘사하며 끝난다. 앞에 서술한 쿠조의 꿈의 서술은 전후체험이 가져다 준 아베의 ‘경계선상’의 감각과 거기서 파생되는 “마치 같은 장소를 빙빙 돌고 있는 듯하다”는 실감[26]과 고향과 아이덴티티에 대한 양면가치(ambivalence), 나아가서 아베 코보의 작품

25) 박이진, 「아베코보의 만주표상 - 귀환자의 노스텔지어 -」, 『만주연구』14, 2012, pp. 185-221.

26) 現代評論社編、「現在の目④ ハードボイルド 下」2、現代評論社、1957、p. 27.

에서 추출할 수 있는 '도피, 다람쥐 쳇바퀴돌기, 미로, 탈출불능, 악몽'이라는 요소들과 함께 이 작품에서 중요한 것은 그와 같은 정체에 이어지는 것을 돌파하고 타고 넘으려고 하는 것이 마지막 이 행위에 있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쿠조는 포기하지 않고 가혹한 황야에서 보여준 동물적인 신체감각은, 근원적인 생명력과 미래를 개척해 가는 힘이라고 해석할 수 있으며, 그 힘을 마지막 장면에서 발휘하고자 하는 듯 보여진다. 다카노 토시미(高野斗志美)의 "괴멸 속에서 굶주림에 허덕이고, 인간의 허구를 일체 벗겨내면서 인간의 미지의 원질(原質)을 포착하고자 한 작품"[27]이라는 평은 작품의 본질을 적확하게 포착했다고 보여 진다.

한편, 쿠조의 보행행진의 목적은 정말로 일본이라는 고향의 귀환에 있었던 것일까라는 점이다. 오히려 결말에서 쿠조가 황야에서 빠져나왔지만 일본에 가지 못하고 선창에 갇힌 것은 지금까지의 모든 행위의 무효가 되는, 또 다시 만주로 돌아가지 않으면 안 되는 반전이라고도 생각할 수 있을 것이다.

푸코가 말한 "그것들이 가리키거나, 투영되거나 반영되어 있는 관계의 전체를 의심하거나, 무효로 하거나, 전도(顚倒)시키는 방법으로 다른 모든 장소와 관계하고 있는, 기묘한 성질을 갖춘 장(場)"[28]으로서의 만주설정으로 해석해 볼 수 있을 것이다.

4. 나오며

본고에서 인용한 작품속의 만주라는 장소는 주체의 욕망을, 때로는 전도시키고, 때로는 무효화시키고, 때로는 대항시킨다. 또 만

27) 高野斗志美、「編年体・評伝安部工房」、『國文學』臨增号9、學灯社、1972、p. 48.

28) Foucault.M., "Of other space", 전게서, p. 24.

주라는 지역성에 의해 주체가 변형되어 가는, 즉 헤테로화해 가는 주체가 된다. 만주공간에서는 서로 상호관계하고 반향하며, 충돌, 조합하면서 혼란스런 시공간 단위를 만들어가는 관계를 가지며, 동종화와 합리성에 저항하며 중심의 창조와 파괴가 연속되는 잠재력의 공간으로서 작용한다.

나쓰메 소세키의 만주관련 작품들은, 보상에 입각한 창조방식의 '대상의 헤테로토피아'로서 설명할 수 있으며, 『변형의 기록』에서는 서로 공립 불가능한 몇 개의 헤테로한 영역의 사물을 하나의 리얼한 장소, 즉 만주라는 공간에 하이브리드적으로 병치, 전시시켜 아베 코보의 사상 즉, 전쟁의 잔혹함과 비판을 투영시키고 있다.

이 점에 대해서는 패전 후, 만주의 사회적, 정치적 상황에 대해 그가 이렇게 말한 적이 있다.

"8월이 되어 갑자기 전쟁이 끝났다. 뜻밖에 세계가 빛에 감싸여 모든 가능성이 한꺼번에 찾아온 것처럼 생각되었다. 하지만 뒤를 이어 가혹한 무정부상태가 찾아왔다. 그러나 그 무정부상태는 불안과 공포의 반면, 어떤 꿈을 나에게 심어 준 것도 사실이다. 아버지와 아버지로 대표되는 재산과 의무로부터의 해방. 계급과 인종차별의 붕괴...(오족협화라는 가짜 슬로건을 나는 마음으로부터 믿고 있었고 그것을 짓밟아 가는 일본인의 행동에 강한 증오와 모멸을 느끼고 있었던 것이다)"[29]라는 그의 말을 반영하듯 『변형의 기록』에서는 사자의 시선을 통해, 또 『짐승들은 고향을 향한다』에서는 구키 쿠조의 행동을 통해 작가의 비판적 인식과 사회현실을 투영하게 했다.

아베코보의 작품속의 만주공간은, "문화 속에 나타나는 다른 모든 현실의 장(場)을 표상하거나, 전도시키거나, 또 그것에 도발하는

29) 安部公房、「自筆年譜の昭和二十年の頃より」、『新鋭文學叢書　安部公房集』、筑摩書房、1960、p. 218.

대항(對抗)-장(場)(counter-sites)인 현실의 장(場)"[30]으로서 그것이다. 또한 '현실 속에 위치를 차지하고 있지만, 모든 장소의 외측에 있다'는 의미에서 다른 장소와는 이질적인 '다른 장소'이며 '타자의 장소'이기도 하다. 그것은 사회적 정상적 일상적 공간에 반하는 공간, 사회로부터 일정하게 분리된 채로 완벽한 나름의 제국, 이질적 공간을 구성하는 곳이라고 푸코가 표현했듯이 그 곳이 바로 만주이다.

이러한 의미에서 만주는 '다른 장소'이고 '타자의 장소'이며, 일본과 동아시아의 근대의 빛과 그림자가 조정 불가능한 형태로 집약된 헤테로토피아로서 포착할 수 있을 것이다.

참고문헌

1. 기본 자료

安部公房、『けものたちは故郷をめざす』、新潮社、1971.
_____、『R62号の發明・鉛の卵』、新潮社、1974.
夏目漱石、『草枕』、岩波書店、2000.
_____、『門』、岩波書店、1999.
_____、『彼岸過迄』、日本近代文學館、1976.

2. 논문

박이진, 「아베코보의 만주표상 - 귀환자의 노스텔지어 -」, 『만주연구』 14, 2012, pp. 185-221.
강정민・김동일, 「미셸 푸코와 미술관에 대한 테제들」, 『인문연구』 66, 영남대학교 인문과학연구소, 2012, pp. 135-160.

30) Foucault.M., "Of other space", 전게서, p. 24.

大江健三郎・辻井喬、「眞暗な宇宙を飛ぶ一冊の書物」、『新潮』4，新潮社、1993、pp. 11-23.
現代評論社編、「現在の目④ ハードボイルド 下」2、現代評論社、1957、pp. 27-35.
高野斗志美、「編年体・評伝安部工房」『國文學』臨增号9、學灯社、1972、pp. 44-51.

3. 단행본

야마무로 신이치 저/윤대석 역,『키메라-만주국의 초상(キメラ 滿州國の肖像)』, 소명출판, 2009.
이진경,『외부, 사유의 정치학』, 그란비출판사, 2009.
푸코,「바깥의 사유」, 김현 편,『미셸 푸코의 문학비평』, 문학과 지성사, 1989.
허경,「미셸푸코의 '헤테로토피아' - 초기공간개념에 대한 비판적 검토」,『현대사상과 도시』, 라움, 2012.
安部公房、「自筆年譜の昭和二十年の頃より」、『新鋭文學叢書 安部公房集』、筑摩書房、1960.
伊豆利彦、「漱石とアジアー滿韓ところどころその他」、『漱石と天皇制』、有精堂、1989.
Foucault.M., “different Spaces”, In J.Faubion(ed), *Essential Works of Foucault 1954-1984: Aesthetic, Method, Epistemology,* New York: The New Press, 1998/1967.
_____, “Of other space”, Diacritis, 1986.
M.Foucault., “Des esoaces autres”, *Dits et écrits IV,* Gallimard, 1994.
_____, “Les hétérotopies, in Le corps utopique suivie de Les hétérotopies”, Nouvells Editions Lignes, 2009.

日本小説のなかのヘテロ化する空間、満州
- 投影、反転、異質性の併置 -

李英姫

本稿はFoucault.M.の空間論である「ヘテロトピア」を日本の小説の背景となった満州空間に適用し、日本文学の作品のなかで満州といった空間はどのように表象し、形象化しているのかについてあたらしく解釈してみようと試みた。

この論文ではとくに夏目漱石と安部工房の満州関連作品を対象としたが漱石の小説では、いろいろな理由で日本に居られない人や不幸な人、敗北者などが満州では新しい人生を開き、生き生きと生活していることを描写している。つまり満州は希望の空間であり、理想を実現できる「代償のヘテロトピア」として形象化していると述べることができる。

つづいて安部工房の『変形の記録』『けものたちは故郷をめざす』では満州空間で展げられる死者をはじめとする異他の人物や、登場する人物の心理などが異質的に変わることをFoucault.M.のヘテロトジニアス(異種混淆的)空間として解釈し、ヘテロトピアの異質性の併置原理のヘテロトピアは一つのリアルな場所にもともと互いに共立不可能ないくつかのヘテロなサイトの事物を一つのリアルな場所にハイブリッド的に、反映・併置・展示させることができる、という論を適用してみた。

また、この作品は「死者」の眼差しを通し、戦争の現実と残酷さを描写した点では、ヘテロトピアの原理である鏡の持つ対称性や反転性の特質、すなわち社会的現実を投影する鏡としての空間を満州と設定したとみることができる。なお、作家の反戦思想及び植民地批判に関する認識の投影でもあると述べた。

『けものたちは故郷をめざす』では、主人公が「けもの」化していく描写については、「対称(位置)の力によって主体が作られていく」とFoucault.M.が述べたように、作品の主人公は満州という地域性によって変形していく、つ

まりヘテロ化していく主体になると解釈し、このようなけもの化を促すことは実に満州の地域性と敗戦後の時代性であると付け加えた。作品の最終節、主人公が日本を目前にしながら日本船に監禁されてしまったことは今までの行為がすべて無効になるとともにまた満州に戻らなければならない反転とも考えられるし、Foucault.M.の述べた「それらがたまたま指し示していたり、映し出していたり、反映したりしている関係の全体を疑ったり、無効にしたり、転倒させたりする仕方で、他のあらゆる場と関係している、奇妙な性質をそなえた場」としての空間であると解釈してみた。

キーワード: ミシェル・フコウ(Foucault.M)、空間論(ロ space theory)、ヘテロトピア(heterotopia)、満州(manchuria)、夏目漱石(Natsume souseki)、安倍公房(Abae Koubou)、投影(reflection)、反轉(inversion)、異質性の併置(Heterogeneity of Chi), 混淆(admixture)

이영희
소속: 영남대학교 일어일문학과
주소: 경북 경산시 대동 영남대학교 중앙도서관 16층 인문과학연구소
전화번호: 010-7143-7528
전자우편: gomgoda21@hanmail.net

이 논문은 2014년 3월 24일 투고하여
2014년 4월 14일까지 심사 완료하여
2014년 4월 16일 게재 확정함.